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의 성공을 응원하며

전일광장

이기연
한국지방정부연구원장
교육학박사



최근 전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 전남 교육정책연구소는 전남교육 정책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연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그 중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운영 방안 연구’는 현안 이슈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주제로 현장 참여자들의 토론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

전남도교육청은 전남 학생들이 지역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이해하고 지역에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글로벌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교육정책은 해외 국가들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분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은 정책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확대되고 있다. 핀란드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수를 3배로 늘리고 졸업생의 75%가 자국에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매년 1만 5000명의 국제 학생을 유치하고 취업 이민자를 3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2033년까지 40만 명의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글로벌 인재 유치와 정착을 위한 정책은 학령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인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도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및 중장기 지역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해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운영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외 유학생 유치로 글로벌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2025년부터 5개교가 운영되는 전남직업계고등학교의 실질적 방향 설정과 실행에 매우 중요한 학술적·실천적 의미를 담은 연구이다.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가 더욱 탄탄한 운영과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과 연계·협업해야 한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전남 RISE 사업은 ‘지역과 대학이 주도하는 그랜드 전남 혁신성장 실현’을 목표로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대학30에 선정된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는 지역 교육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전남은 교육발전특구 1·2차 공모를 통해 전국 최다인 17개 시·군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영암·강진지역은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국제직업고등학교 신설과 지역 특화 산업 연계 일자리 창출 모델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들은 여수의 신에너지·마이스관광, 담양·구례·곡성의 K푸드산업, 장흥·보성·고흥의 미래농생명산업, 해남·완도·진도의 해양관광융복합산업, 함평·영광·장성·화순의 인재유치 교육특화 등 각 지역의 여건과 특화 산업에 기반한 지역특화 직업계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올해 운영을 시작한 5

개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를 비롯해 향후 유학생 유치를 희망하는 직업계고는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된 지자체와 함께 전남도교육청의 글로벌 인재양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유학생이 전남도에 정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 인적 자원으로 인정하며, 일시적 체류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성이 있어야 한다. 차별과 편견 없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인정하는 다양성 존중과 관용의 정신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남도교육청과 전남도 및 22개 지자체는 이러한 의미를 담은 ‘글로벌 도시’ 선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배경의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전남도민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오는 3월이면 전남의 5개 국제직업고등학교에 베트남,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쿠바의 학생 77명이 입학하게 된다. 새로운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곳으로 전남을 선택한 학생들의 용기와 도전을 응원한다. 그리고, 외국 유학생들이 전남지역에서 정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친(親)한국 리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남도교육청의 포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社說

수출 감소, 기업·지자체 선제 대응 나서야

광주·전남 수출 1년새 24% 급감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연초부터 찬바람을 맞고 있다는 소식이다. 12·3 내란사태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시화 된 고율 관세 정책이 원인일 터다. 수송장비와 석유 화학, 철강 등 광주·전남의 전통 주력 업종이 동시다발로 감소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수출이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체임을 감안하면 우려스러운 일이다.

17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광주·전남 1월 수출은 47억 74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3.7% 감소했다.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49억 4200만 달러와 비교해도 3.4% 줄었다. 특히 무역수지는 지난해 1월 19억 8200만 달러 흑자였지만 올해는 7억 3600만 달러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품목별로는 광주의 경우 기계류만 유일하게 증가했을 뿐, 수송장비와 반도체, 타이어 등 주력 품목 대부분이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전남도 석유제품과 화공품, 철강, 기계류 등 주요 수출 품목이 모두 줄었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10일 기준으로 조사한 트럼프 2기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에 따르면 특정국 관세조치에 이어 보편관세까지 단행할 경우 대미 수출과 대중국 수출은 각각 7.9%와 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수출도 3.2%와 11.5% 줄면서 총수출 또한 132억 달러에 머물 것이라는 게 무역협회의 설명이다. 미국이 중국에 10%p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3월로 유예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p 관세를 실제 시행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100억 3000만 달러 감소할 것이라는 추산치도 제시했다.

광주·전남은 경제 구조상 수출이 감소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우선은 기업부터 원가 절감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소재와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비롯한 신시장 개척도 필요하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자치단체도 정부와 적극 협력해 불확실성에 놓인 관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친환경 인증 늘려 ‘돈버는 농업’ 실현할때

전남 벼 인증면적 확대기로

전남도가 올해 친환경 벼 인증면적을 1800ha까지 늘릴 계획이다. 도는 친환경 벼 재배 확대에 판로와 가격이 보장되고 쌀 생산 공급과잉과 탄소배출 문제까지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전남의 친환경 인증 면적은 3만 5417ha로 전국의 51% 규모다. 품목별로 벼가 2만 2018ha, 벼 이외 품목은 1만 3399ha다.

지난 1999년부터 친환경 농업에 매진한 전남도는 벼와 과일, 채소 등 수십여 작물을 다양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계속해서 친환경 재배면적이 줄었다.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서다. 한때 친환경 농법으로 꼽힌 우렁이 농법 등은 온난화로 골칫거리가 됐고, 병충해 피해가 급증했다. 전남도가 올해 친환경 벼 인증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반길 일이다. 공급과잉인 일 반쌀 대비, 판로확대·가격 보장과 적정 생산량에 탄소 배출 경감까지 1석

4조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도는 친환경 벼 인증면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직불금 인상과 신규 농가의 진입장벽도 대폭 낮출 계획이다. 친환경직불금 지급단계는 논 5ha당 유기는 70만원에서 95만원, 무농약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6년 차부터 지급되는 유기 지속직불금은 35만원에서 57만원으로 인상했다. 농가당 지급상한 면적도 현행 5ha에서 30ha까지 확대한다. 친환경 벼는 일반벼 수매가보다 5% 인상됐다. 현행 1만톤의 친환경벼 공공비축수매량을 15만톤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전량 수매할 방침이다. 매입한 친환경 쌀은 군급식, 복지용 쌀로 공급한다. 신규 농가가 올해 친환경 직불금을 받도록 무농약 인증을 처음 신청하면 경영 관련 1년치 자료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했다. 전남은 자타공인 친환경 농업의 선두주자다. 유기농 중심 저탄소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은 앞으로도 확대돼야 한다. 가공·체험·관광·수출까지 아우르는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이젠 전남이 ‘돈 버는 농업’을 실현시킬 절호의 기회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6일(현지 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무더운 여름 날씨 속 피서객들이 피시나우 지 하무스 인공 해변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AP/뉴시스

서석대

지난 주말인 15일, 광주에 보수를 자처하는 내란 세력 동조자들이 집회를 열었다. 어떤 광기가 저들을 광주로 모이게 했는지는 알수가 없으나, 광주는 그저 의연하기만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런 무리들이 이 도시로 쳐들어 온 때를 시민들은 아직도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때의 침략자에 비한다면 이날은 그저 애교에 가까웠을 수도 있다.

다만 의연했지만 물렁하지는 않았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라고 외치는 당당함부터 “광주 왔으니 맛있는 밥이나 먹고 가라”는 해학까지 광주는 그저 광주였다.

더불어 그들은 실수를 하나 했다. 광주에 오느라고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앞에 인원이 텅텅 빈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그들의 깃발은 든 무리들이 얼마 모이지 못했다고 한다.

이것이 무슨 뜻이나 하면, 박박 굶어서 광주로 온 1만여 명이 그들의 전 재산이라는 것이다.

반면 광주는 유유자적 점심 먹고 모인 이들과 2만여명. 두배 숫자다. 모이라고 악지르는 이도 없고, 모였다고 뭉쳐주는 이도 없는데, 자연스레 모여서 1만의 외부자들을 둘러싼 것이다.

예부터 대한민국은 봄이 오기 전 매우 추워지는 시기가 있다.



꽃샘추위라고 불리는 것인데, 초봄이 지나 따뜻해지고 꽃이 필 때 쯤 다시 날씨가 일시적으로 추워지는 특이한 일기 현상이다. 봄꽃이 피는 걸 시샘한다 해서 꽃샘추위라는 이름이 붙었다.

시골 어른들은 꽃샘추위로 한해를 점치기도 했는데, 꽃샘추위가 매우 추우면 “올 농사가 매우 어렵다”고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꽃샘추위가 왔다는 것은 봄이 바로 앞에 도달했다는 뜻도 된다. 두껍고 무거운 외투를 여미며 버티고 버티다 보면 어느새 따뜻한 날들이 우리 곁에 도래해 있는 것이다. 온다는 말

은 없었지만 어김없이 찾아오는 약속된 기쁨이기도 하다. 유사한 것이 또 있다. 새벽이다.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다. 빛이 나오기 전 모든 빛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역시 길지 않다. 어두운 풍경을 바라보면 서 지긋이 버티면 기어코 해는 뜨고 만다.

저들도 곧 꽃샘추위마냥, 새벽마냥 사라질 것이다. 어차피 봄과 태양이 약속하지 않아도 오는 것처럼 저들 역시 어느 순간 소리없이 숨어들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1만의 외부인을 마주한 2만의 광주 시민들이 200만, 2000만으로 산뜻해질 전국 각지에서 활짝 필 것이다. 그 날이 머지 않은 가까운 시일에 반드시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노병하 취재1부 정치부 부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